

[ 발표 2 ]

## 농촌노인부부의 삶에 나타난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의 재구성

양영자(경남대)

### 1. 서론

사회과학적 생애사 연구에서의 ‘생애사(Biography)’는 개인의 체험이 사회적 맥락에서 개인적으로 구조화된 ‘사회적 구성체(soziales Konstrukt)’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규칙, 쟁점 및 사회적 여건을 함축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Dausien, 1996; Völter, Dausien, Lutz and Rosenthal, 2005). 따라서 사회적 현실이 내포하는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은 생애사 연구를 통해서 분석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Marotzki, 2006). 이러한 생애사 연구에 내재되어 있는 ‘개인의 행위와 사회적 관계의 변증법적 분석’(Amann, 1983)은 각 부문학문이 취하는 이론과 방법론에 따라 달라지는데, 언어학과 해석학을 바탕으로 한 텍스트분석(역사학적인 재구성과 심리학적, 교육학적 및 사회학적 맥락적 분석 등)으로부터 민속지학적 관찰방법과 담론분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Völter 외, 2005). 즉 생애사 연구는 다양한 학문분야를 통해 그리고 학제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생애사 연구가 역사학, 인류학, 사회학, 범죄학, 발달심리학, 사회심리학, 심리병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노년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그리고 학제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Mayring, 2002).

반면 한국에서의 생애사 연구는 역사학과 인류학, 여성학, 사회학 등 특정 학문분야에 집중되어 있고(한경혜, 2004: 103), 학제적 연구 또한 이러한 특정 학문분야 내에 치중되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노년학 및 노인복지학 분야에서는 생애사 연구<sup>1)</sup>가 극히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한경혜, 2004)이다. 그런데 이러한 극소수에 불과한 생애사 연구도 주로 특정 노인집단, 예컨대 도시지역의 여성노인집단에 집중되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노인은 하나의 특성을 지니는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계층과 성, 지역 등에 따라 다른 특성을 지니는 이질적인 집단(Clemens and Naegele, 2004)이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생애사 연구 또한 이러한 차이를 포착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본 생애사 연구는 농촌노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도시노인에 집중되어 있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노인부부를 ‘연구주체(Forschungssubjekt)’<sup>2)</sup>로 함으

1)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강유진·한경혜(2002), 박기남(2004), 한경혜(2004), 안진(2005), 이효선(2006; 2007), 양영자(2007) 등의 논문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노년학 및 노인복지학 분야의 생애사 연구가 이처럼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생애사 연구를 포함한 질적 연구가 사회복지학 전반에서 아직 ‘태동기’(김인숙, 2007)에 있는 점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2)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자’를 객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주체’로서 능동적인 의미를 부여한다(Lamnek,

로써 '젠더관계(Geschlechterverhältnis)'(Dausien, 1996)에 주목한 생애사 연구를 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 1) 이론적 배경

본 생애사 연구의 이론적 토대는 Schütze(1983; 1984; 2006)의 '생애사 연구'와 Dausien(1996)의 '여성주의적 생애사 연구'이다.

#### (1) Schütze의 '생애사 연구'

Schütze(1983: 283-293)는 모든 사람의 이력에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Prozessstrukturen des Lebensablaufs)'(Schütze, 1983; 1984; 1987; 2006)의 기본적인 형식이 있는데 생애사 연구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는 '생애사주체'가 생활 사건들의 진행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Schütze, 1984: 92; 2006).

첫째, '생애사적 행위모형(Biographische Handlungsschemata)'은 '생애사주체'가 세운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 혹은 '행위자(Handelnder)'로서의 '행함'의 행위가 두드러질 때 나타나는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라고 하였다.

둘째, '생활사의 제도적 진행유형(Institutionelle Ablaufmuster der Lebensgeschichte)'은 '생애사주체'와 그의 파트너가 사회적 혹은 조직적 기대시간표(Erwartungsfahrplan)에 따라 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될 때 나타나는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라고 하였다.

셋째, '진행곡선(Verlaufskurven)'<sup>3)</sup>은 '생애사주체'가 강력한 생활 사건들에 의해 압도당할 때 나타나는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진행곡선'은 행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상실함으로써 '당함'의 행위, 즉 '고통의 경험'이 두드러진 '고통받는 자(Erleidender)'의 생애사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넷째, '변천과정(Wandlungsprozesse)'은 '생애사주체'의 내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생활사적 사건들의 진행이 급작스럽게 전개될 때 나타나는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변천과정'은 '생애사주체'의 동질성이 변화되어 새로운 행위가능성이 열리게 된 생애사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 (2) Dausien의 '여성주의적 생애사 연구'

Dausien(1996)은 Glaser and Strauss(1967; 1979)의 근거이론과 Schütze(1983; 1984)의 생애사 연구를 응용하여 '여성주의적 생애사 연구'라는 독자적인 연구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젠더관계'가 생애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즉 젠더의 차이와 공통점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개의 여성 생애사를 그들 각각의 남편의 생애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3개의 이론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생애사적 경험과 기대는 각자의 방식으로 젠더를 통해 코드화된다는 '생애사의 젠더와의

1993: 74).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라는 용어보다는 '연구주체'라는 용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한다.

3) '진행곡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Schütze(2006)의 "해석학적 사회학의 연구대상으로서의 고통의 진행곡선 (Verlaufskurven des Erleidens als Forschungsgegenstand der interpretativen Soziologie)"이라는 논문을 참조하라.

결합'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그는 생애사가 젠더에 따라 발전된다는 기존의 여성주의적 시각은 개인주의적 시각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둘째, 여성의 생애사에는 '직장과 가정의 이중적 사회화'(Becker- Schmidt, 1987)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중적 사회화'가 여성의 생활사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모순, 즉 '생활사의 모순성'<sup>4)</sup>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생활사는 미시적인 차원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데, 이러한 생활사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성'은 '구성과정(Konstruktionsprozess)'의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젠더차이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사의 모순성과 사회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그는 생애사 연구에서 나타나는 개인화의 경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사회적 구성체로서의 젠더는 또한 생애사적 구성체이기도 하다는 "doing gender"의 생애사적 구조'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즉 젠더는 복잡하고 적극적인 생활과정에서 생애사적으로 '구성'되었고 또 항상 새롭게 '구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Dausien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젠더는 'doing gender'의 과정으로서 생애사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그 핵심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상술한 Schütze의 '생애사 연구'를 근거로 하여 농촌노인부부의 생애사에서는 어떠한 유형의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Prozessstrukturen des Lebensablaufs)'(Schütze, 1983; 1984; 1987; 2006)가 나타나는지 재구성하고, Dausien의 '여성주의적 생애사 연구'를 근거로 하여 이러한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에 어떠한 '젠더관계'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으로써 생애사 및 '젠더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sup>5)</sup>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Schütze(1983)의 생애사적-이야기식 인터뷰(autobiographisch-narratives Interview)를 통해 그리고 인터뷰자료는 그의 생애사적-이야기식 인터뷰 분석방법에 Dausien(1996)의 여성주의적 생애사 분석방법을 절충·응용하여 분석하였다.

### (1) 자료수집

자료수집을 위한 생애사적-이야기식 인터뷰는 Schütze가 제안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실시하였다. 첫째, 생애사적 이야기에 대한 요청의 단계에서는 연구의 목적, 생애사적-이야기식 인터뷰의 원칙 및 기능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신뢰관계가 형성되도록 하였다. 둘째, 생애사적 이야기에 대한 요청의 단계에서는 인터뷰파트너의 경험과 행위에 대해 의미부여를 하고 해석한 바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셋째, 후질문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은 테마나 잠시 언급만 하였으나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 테마 혹은 합리화된 것으로 판단된 문제 등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을 하여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4) '생활사의 모순성'은 여성의 생애사에서 나타나는 여성특유의 삶의 진행과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개념이다. 남성의 '정상적 생애사(Normalbiographie)'가 '직장'을 위주로 일직선(Gradlinigkeit)을 이루는 삶으로 나타나는 반면, 여성의 생애사는 '직장과 가정의 이중적 사회화'를 통해 '단절(Brüche)'과 '비연속성(Diskontinuitäten)'을 이루는 삶으로 나타나는 젠더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Becker-Schmidt, 1987; Dausien, 1994; 1996).

5)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등 생애사연구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한경혜(2004), 이효선(2006), 양영자(2007)의 논문을 참조하라.

위의 3단계에 따라 행한 생애사적-이야기식 인터뷰는 2006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전북 순창군 A)면의 B, C, D마을에서 총 6쌍의 노인부부와 개별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총 12개의 개별 인터뷰는 해당 노인의 자택에서 하였는데, 짧게는 45분부터 길게는 2시간까지 소요되었다.

## (2) 자료분석

인터뷰자료는 Schütze의 생애사적-이야기식 인터뷰 분석방법에 Dausien의 여성주의적 생애사 분석방법을 절충·응용하여 다음과 같은 5단계의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녹취단계'에서는 이야기 내용뿐만 아니라 중단된 부분, 웃음, 표정 등도 함께 필사하였다. 둘째, '형식적 텍스트분석 단계'에서는 이야기식이 아닌 텍스트 부분을 찾아 삭제한 뒤 문단나누기를 하였다. 셋째, '구조적 내용적 서술 단계'에서는 시간적으로 진행되는 '생활흐름의 과정구조'를 서술하였다. 넷째 '분석적 추론 및 지식분석 단계'에서는 먼저 각 삶의 단계에서 추론한 구조진술을 체계적으로 관련시켜 전체적인 생애사의 틀을 추출하는 '분석적 추론'을 하였다. 다음으로 '생애사주체'가 자신의 생애사나 동질성에 대해 느끼거나 생각한 바를 추출하는 '지식분석'을 하였다. 마지막 다섯째, '비교분석의 단계'에서는 개별 인터뷰텍스트들을 대조시켜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의 유형과 그 유형 속에 나타난 '젠더관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때의 비교분석은 '극소비교의 원칙'과 '극대비교의 원칙'에 따라 하였다.

## 3. 연구결과

본 '생애사주체들'의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는 개인적 및 가족적 차원에서는 '생애사적 행위모형'을 그리고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는 '진행곡선'을 이루는데, 양 유형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진행곡선'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의 '젠더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첫째,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의 미시적 및 거시적 차원에서 '젠더관계'가 나타났는데, 남성노인들의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에서는 개인적 및 가족적인 맥락만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맥락도 나타난 반면, 여성노인들의 '삶의 진행과정구조'에서는 주로 개인적 및 가족적인 맥락이 나타난 젠더차이를 보였다. 둘째,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의 미시적 차원에서 '젠더관계'가 나타났는데, 남성노인들은 생애단계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바깥일'을 위주로 하는 단일한 역할을 담당하며 '집안일'을 하는 데에 소극적인 반면, 여성노인들은 전 생애에 걸쳐 '집안일'과 '바깥일'의 '이중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한 젠더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서 젠더가 '구성'될 뿐만 아니라 '탈구성'되는 'doing gender'가 생애사에 나타나며, 나아가 이러한 'doing gender'는 생애단계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그들의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는 결혼과 노년기를 기점으로 하여 3개의 생애단계로 나누어 '젠더관계'에 주목하여 재구성되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 이전의 생애단계에서는 생존을 위협하는 절대빈곤과 그로 인한 교육기회의 박탈이나 제한에 대한 경험이 주요 화두로서,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는 개인적 및 가족적인 차원에서는 '행하는' 행위에 의해 '생애사적 행위모형'을 그리고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는 '당하는' 행위에 의해 '진행곡선'을 이루는데, 양 유형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고통의 경험'이 우세한 '진행곡

6) 지명이나 마을명, 학교명, 인명 등은 익명성의 보장을 위해 필요에 따라 부호화한다.

선'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단계에 대한 논의가 다른 생애단계와 비교해볼 때 매우 제한적인 데에 그친 것은 전체 삶에서 주변화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정형화된 젠더역할만이 아니라 '바깥일'과 '집안일'의 '이중적 역할'도 남녀 모두 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젠더가 '구성'되고 '탈구성'되는 'doing gender'가 남녀 모두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

둘째, 결혼 이후 노년기 이전의 생애단계에서는 가족부양과 자녀교육의 주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어려움이 주요 화두로서,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는 개인적 및 가족적 차원에서는 가족부양과 자녀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에 의해 '생애사적 행위모형'을 그리고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는 대물림된 빈곤, 도·농간 불평등한 교육제도, 6·25전쟁, 부정적인 새마을운동경험 등에 의해 '진행곡선'을 이루는데, 양 유형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주로 '당하는' '고통의 경험'이 두드러진 '진행곡선'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남성노인들은 '바깥일'을 위주로 하는 단일한 역할을 담당하며 '집안일'을 수행하는 데에 소극적인 반면, 여성노인들은 '집안일'과 '바깥일'의 '이중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한 젠더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젠더가 '구성'되고 '탈구성'되는 'doing gender'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

셋째, 노년기에는 자립적인 생활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농업 및 부업활동을 지속해야하는 '고통' 및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없는 요수발상황에 직면할 경우에 대한 불안감이 주요 화두로서,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는 개인적 및 가족적인 차원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행하는' '생애사적 행위모형'을 그리고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는 불합리한 농업정책과 미흡한 노인복지정책 등으로 '궁지에 내몰린' 삶, '막다른 골목'에 처한 삶으로 예견되는 요수발상황 그리고 요수발상황에서의 무력감 같은 '고통의 경험'이 두드러진 '진행곡선'을 이루는데, 양 유형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진행곡선'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남성노인들은 '바깥일'을 위주로 하는 단일한 역할을 담당하며 '집안일'을 수행하는 데에 소극적인 반면, 여성노인들은 '집안일'과 '바깥일'의 '이중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한 젠더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젠더가 '구성'되고 '탈구성'되는 'doing gender'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

#### 4. 결론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본 '생애사주체들'의 삶을 '젠더관계'에 주목하여 생애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이로부터 추론한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는 '진행곡선'으로 나타난 그들의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및 가족적인 차원에서는 '생애사적 행위모형'이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최대의 위기상황으로 예견되는 요수발상황을 제외하고는 홀로 될 경우에도 자립적인 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도출되는 바, 자립적인 노년을 실현시키고 나아가

7)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특히 빈곤한 농촌지역의 노인부부들을 '연구주체'로 하였다는 점에서, 이질적인 농촌노인 집단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농촌노인집단 내에 나타나는 지역적 차이 (interregionale Disparität)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생활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소득보장책을 비롯한 다양한 노인복지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노인복지방안은 도·농 간의 불평등한 노인복지인프라와 요보호노인위주의 '선별적인 복지정책'으로 인해 '일반'노인들은 실제적인 복지서비스로부터 거의 배제되어있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하여 도·농 간의 평등한 복지인프라구축 및 '보편적인 복지정책'에 입각해 강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요수발상황에 직면할 경우에도 자녀들에 의한 가족수발보다는 (전문)요양원이나 노인(전문)병원 등과 같은 시설수발을 선호하는 점에 주목하여, 시설부양을 위한 인프라구축 및 서비스의 공급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 그러나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볼 때 장차 농촌노인의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변화에 주목한 장기적인 안목의 시설부양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시설수발에 대한 선호는 가족수발의 실현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 상황에서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경험의 미흡 및 부재로 인해 시설위주의 편향된 복지인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바, 시설수발뿐만 아니라 재가수발까지도 아우르는 포괄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요수발상황에 대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설부양을 위한 인프라구축 시에는 자녀들의 생활근거지가 도시인 점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오히려 자녀들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도시지역에서의 시설수발이 현실성 있는 대안일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아울러 생애사에 나타난 '젠더관계'에 주목한 노인복지를 실천해야 하겠다. 그들의 생애사에는 젠더가 '구성'될 뿐만 아니라 '탈구성'되는 'doing gender'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doing gender'는 생애단계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젠더차이를 보이는 바, 이에 주목한 실천적 복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독거상황에 직면할 경우 남성노인들도 선호하는 자립적인 생활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이중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젠더의 '탈구성' 능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